

Japan Weekly Digest

2012. 6. 30 ~ 2012. 7. 06

① 주간 경제 초점

- 한국산 철강제품의 일본시장판매 호조와 유통구조 침투전략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- 중국투자펀드, 일본 중소기업의 중국진출 지원
- 소비세 증세법안의 환율 영향에 주목

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

대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① 주간 경제 초점 : 한국산 철강제품의 일본시장판매 호조와 유통구조 침투전략

□ 대형 수요기업과의 직 거래망 확보

- 일본의 독특한 유통구조인 ‘히모쓰키’ 라고 하는 자동차나 가전 등 특정 수요기업용 강재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공급이 두드러지고 있음
 - 한국산 강재의 유통채널은 일반유통점인 강재도매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, 최근 1년 동안은 일본기업이 장악하고 있던 특정 수요기업에 공급되고 있음
 - 최근 일본의 철강시장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인데도 한국산 철강이 공급되고 있는 배경에는, 일본 제조업의 해외이전도 고려한 마케팅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
- 최근 도요타자동차의 협력부품기업들로 조직된 ‘협풍회’ 총회에서 포스코저팬의 회원가입이 소개됨. 신일본제철이나 JFE스틸 등이 가입되어 있는 회원 명부에 외국기업으로는 처음 이름을 올리게 되었음
 - 도요타의 ‘협풍회’에 가입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연간 10억엔 이상 거래가 있어야 하는데, 포스코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공급망 단절을 계기로 작년 부터 도요타에 공급을 확대
- 일본의 대형 철강 상사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면서, 도요타와 같은 일본 최대 규모의 철강수요기업에 파고든 포스코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함
 - 현대제철은 나고야역 인근 빌딩개발 사업과 관련된 H형강을 수주
 - 세아제강은 일본 각지에서 시행중인 호안정비공사에 철관 약 1만톤을 수주
- 혼다, 닛산, 스즈키에 공급하는 포스코의 강재를 취급하는 대우저팬 관계자에 따르면, 혼다는 ‘05~’ 06년과 비교하여 월간 평균출하량이 약 20% 증가

□ 고품질을 전제로 한 가격경쟁력이 요인

- 시장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기업들은 일본 시장에서 일본제품에 비하여 약 10% 저렴한 가격을 제시. 고베제강소 관계자에 의하면 포스코는 최신 설비를 들여

놓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제품의 품질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

- H형강이나 박강판 등 보통강 강재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금년 1~5월 기간 중 약 124만톤, 원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15% 증가. 증가분의 60~70%는 ‘히모쓰키’ 시장에 공급된 것임

□ 일본의 상 관행을 숙지하여 고객 사후관리에 철저

- 그러나 일본의 강재시장은 수요전망이 신통치 않은데 대우저팬 관계자에 따르면, 일본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경우에도 수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본 내에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
- 포스크저팬 관계자도 일본기업은 의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일본의 상 관행을 숙지하여 존재감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
- 일본상사 관계자는 한국기업들은 특히 고품질을 요구하는 자동차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악화에 직면한 일본의 철강기업들은 새로운 전략을 짜내지 않으면 난국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강조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□ 중국투자펀드, 일본 중소기업의 중국진출 지원

- 중국의 투자펀드가 일본 중견·중소기업들의 중국진출을 지원하고 있음. 중국 강소성 투자회사 등이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총 360억엔 규모의 펀드를 준비
- 기술은 있으나 단독으로 진출이 어려운 일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작기업을 설립, 판로개척 등도 지원
 - 엔고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한 일본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중소기업 분야에서도 확산되고 있으나 기술유출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있음
- 이미 일본의 고급식기메이커인 나루미세이토(鳴海製陶)에 투자실적이 있는 중국의 투자펀드, 시탁·캐피털·파트너즈가 금년에 신규로 일본기업 2개사 정도에 투자할 계획임
 - 시탁파트너즈는 이제까지 총 350억엔 규모의 일본기업 전문 펀드를 설립
- 강소성 투자회사 등이 설립한 최근 일본기업전문펀드는 TIP(강소팝역국제하이테크산업)으로 종합건설회사와 함께 22억위안(약 280억엔)을 출자, 조만간 도쿄에 사무소를 개설, 유치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임
- 주목되는 것은 합작기업 설립 시, 중소기업이 합작기업에 제공하는 제조기술의 금전적 가치를 평가하여, 이를 출자금 대신으로 하는 방법도 인정된다는 점임
 - 일본 중소기업측은 합작기업의 주식 10~45%를 취득할 수 있으며, 자금 여유가 없는 기업들도 기술력이 있으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
- TIP는 세제상 우대제도 등 지방정부와 교섭을 담당하는 것 외에 현지 인맥을 활용한 판로개척도 지원하고 있음. 3~5년내 4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, 그중 5~10개사를 중국에 상장시켜 주식 매각차익을 확보한다는 구상임
- 축전기 개발 전문인 나노셀저팬도 금단시의 공업단지를 시찰할 예정인데 동사는 자동차용 리튬이온전지 생산을 검토하고 있음
 - 금단시는 상해, 남경, 항주에서 자동차로 1~3시간 정도 떨어진 내륙 도시로 일본기업을 포함, 외국기업 200개 기업이 진출해 있음. TIP는 공업단지에 300만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있음

□ 소비세 증세법안이 환율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

- 미국과 유럽의 외환시장에서 재정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, 일본에서도 최근 소비세 증세법안 통과가 환율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음
- 과거 소비세 증세 국면에서는 엔저·달러고가 진행되었음
 - 1989년 4월 소비세 증세가 실시된 이후, 1년 동안은 엔화가치가 1년간 16% 하락. 1997년 4월 소비세 5%로 인상 시에는 연간 7% 엔저가 진행
- 소비세 증세와 엔저와의 관련성에 관건이 되는 것은 경기침체임. 소비침체로 인하여 경기나 기업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자금의 해외유출이 유발
 - 소비세 증세는 일시적으로 물가를 인상시키는데, 이것이 이자율에서 물가상승율을 뺀 실질금리의 차이를 통해서 엔화매도와 엔저로 이어지게 됨
- 한편, 증세로 재정수지가 개선, 엔화에 대한 신인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음
 - 여기에 소비침체로 물가하락 압력이 생기면, 실질금리 상승→엔화 매입→엔고로 이어지게 됨
- 이번 소비세 증세국면에서는 증세 전 상황이 환율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 - 민주당의 분열과 중의원 해산 시나리오 부상 등 정국불안이 엔화 매도를 자극
 - 여기에 증세로 인한 경기침체를 피하기 위해 일본은행의 금융완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추측이 엔저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
- 한편, 개인투자가는 거래비용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. 외환거래 그 자체는 소비세의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, 고객을 상대로 거래하는 FX(외환거래)는 비과세임
 - 그러나 「클릭365」나 「大証FX」 등의 거래소는 FX회사가 고객과 거래소를 중개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세가 부과되고, 세율이 인상되면 수수료로 전가되게 됨
 - 금년 1월 세제개정으로 거래소의 세제상 우대조치가 점두거래에도 적용됨에 따라, 고객이 거래소에서 점두로 몰리고 있음. 거래소 참여 기업들에게는 소비세 증세가 또 다른 부담이 되는 셈

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

일본기업	발표일자	업종	대상국가/기업	사업형태/내용
제일삼공	2012.7.3	제약	영국/GSK	자본제휴/합작기업 저팬와친 설립, 혼합와친 사업
미쓰이물산	2012.7.3	곡물유통	러시아/사들제스트보·그룹	직접투자/러시아 최대착유기업에 10%출자, 곡물수출사업
라옥스	2012.7.3	가전양판	중국/소령전기집단지회사 라옥스	직접투자/북경에 1호점 입점
일본중소자동차부품메이커 23개사	2012.7.3	자동차부품	중국/강소성공업단지	직접투자/단지 내 집적, 개업
혼다	2012.7.3	소형비즈니스제트기	중국, 브라질	판매제휴/현지 항공기관매에서비스회사와 협력, 판매
SCE(소니자회사)	2012.7.3	게임사업	미국/가이카이	직접투자/기업매수, 매수가격 약 300억엔
왕자제지	2012.7.3	제지	중국/산둥세기광양지업집단	자본제휴/합작기업 설립, 29%출자
사이버에이전트	2012.7.4	IT관련투자자회사	한국	직접투자/투자자회사 사이버에이전트 벤처거점 개설
미쓰비시도쿄UFJ은행	2012.7.4	금융	터키	직접투자/현지법인 설립, 자본금 약 240억엔
NEC	2012.7.4	컴퓨터	중국/레노보	생산제휴/수탁생산
소지츠	2012.7.5	바이오수지	브라질/브라스칸	판매제휴/아시아·호주시장 판매대리점 계약
스미토모상사	2012.7.5	철강용석탄	호주	직접투자/석탄광산 권익 취득, 취득가 350억엔, 지분 50%
소지츠	2012.7.6	발전사업	몽골	직접투자/한국포스코, 프랑스 GDF스에즈 자회사와 공동으로 화력발전소 건설 참여, 총사업비 1000억엔
히타치조선·NEDO	2012.7.6	발전설비 건설	베트남	직접투자/폐기물발전설비건설 및 기술수출, 총사업비 24억엔

* 자료: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(1) 『생산거점 없는 중소기업의 해외전개 전략』 일본정책금융공고, 6월30일

*출처: http://www.jfc.go.jp/common/pdf/soukenrepo_12_06_29.pdf

(2) 『일본의 자동차산업』 일본자동차공업회, 7월3일

*출처: <http://www.jama.or.jp/industry/>

(3) 『한국의 대일 부품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는가』 국제무역투자연구소, 7월4일

*출처: <http://www.iti.or.jp/column003.htm>

(4) 『농업재생의 그랜드디자인』 21세기정책연구소, 7월4일

*출처: <http://www.21ppi.org/pdf/thesis/120703.pdf>

(5) 『한국의 대EU수출로 본 FTA효과』 JETRO, 7월4일

*출처: http://www.jetro.go.jp/jfile/report/07001003/kr_export_fta_effect.pdf

(6) 『신 중간층 획득전략(아시아를 중심으로 신흥국과 함께 성장하는 일본) : 산업 구조심의회·무역경제협력분과회 배부자료』 경제산업성, 7월5일

*출처: 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summary/0003344/005_haifu.html

(7) 『일본경제전망 : 정책효과와 소비세증세법안 통과로 2년 연속 플러스 성장』 일본종합연구소, 7월5일

*출처: <http://www.jri.co.jp/MediaLibrary/file/report/japan/pdf/6190.pdf>